

보도자료

이 자료는 1998년 12월 15일 조건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자
(전화번호)

俞京濬 부연구위원
(958-4045)

勞 働 所 得 不 平 等 度 의 變 化 推 移 및 展 望

1998. 12.

韓 國 開 發 研 究 院

< 要 約 >

우리나라 노동소득 불평등도의 현황

- 197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노동소득 불평등도는 1993년을 분기점으로 정체 내지는 약간의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음.
- 로렌즈곡선을 이용한 노동소득 불평등도 분석결과에서도 최근의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향후 우리나라 노동소득 불평등도 전망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노동소득 불평등도 악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추진, 2) 기술진보에 따른 근로자계층의 이분화, 3) 노동조합 조직력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올해 제조업의 실질임금이 1997년에 비하여 15%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동소득의 분배악화는 계속될 전망.
- 또한 저임금계층에 실업이 집중됨에 따라 노동소득의 분배는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 존재.

향후 정책방향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소득분배는 상충관계(trade - off)에 있다는 인식이 필요.
-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고용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되 지나친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지속적 확대가 동시에 필요.

1. 노동소득 불평등도의 추이 및 현황

197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노동소득 불평등도는 1993년을 분기점으로 정체 내지는 약간의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음.

- <표 1>에서 보듯이 지니계수로 측정된 노동소득 불평등도(시간제 근로자 불포함)는 1993년 이후 정체된 상황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p9/p1지수의 노동소득 불평등도(시간제 근로자포함)는 1993년 이후 약간의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음.

* p9는 임금분포를 10등분한 경우 임금 십분위수의 9분위를 의미하며 p1은 1분위를 의미함. 따라서 p9/p1 비율이 클수록 노동소득 불평등도는 커지게 됨을 의미.

<표 1> 한국의 노동소득 불평등도 추이

	1981	1984	1986	1988	1990	1991	1992	1993	1996	1997
지니	0.366	0.351	0.340	0.327	0.300	0.302	0.287	0.289	0.288	0.282
p9/p1	4.79	4.59	4.38	4.14	3.89	3.87	3.63	3.75	3.75	3.77

자료 : 「임금구조기초통계조사보고서」 테이프 각년도에서 계산.

□ 로렌즈곡선을 이용한 노동소득 불평등도 분석결과에서도 최근의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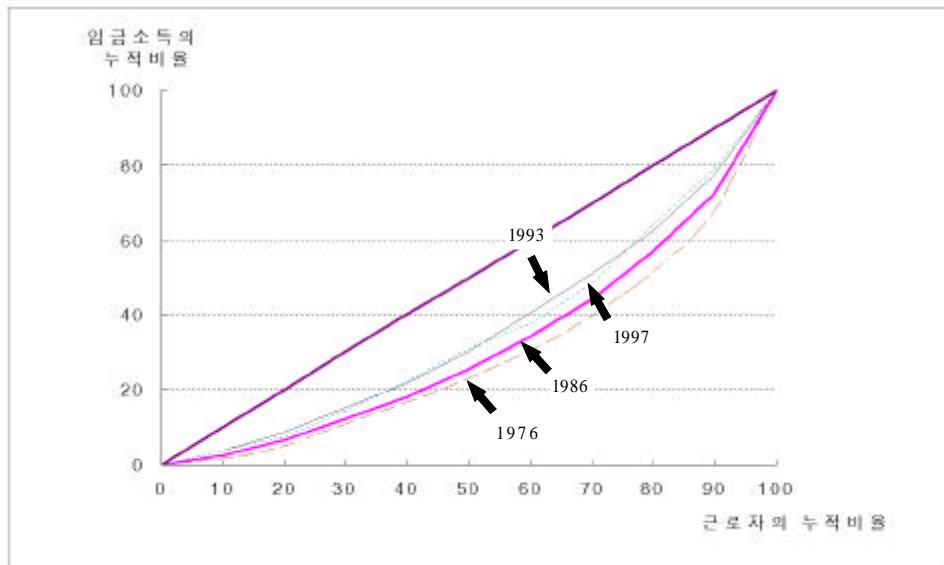
- 1976년이후 1993년까지 약 5년 주기의 노동소득의 분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그림 1] 참조).

* 한 로렌즈곡선이 다른 로렌즈곡선에 비해 모든 점에서 상위 내지 같은 점에 있고 적어도 한점이 상위에 있는 경우 로렌즈지배(Lorenz Dominant) 상태로서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의미.

- 그러나 1993년과 1997년 기간중 로렌츠곡선은 [그림 1]과 같이 서로 교차하고 있어 1993년이후 노동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 말할 수 없음.

* 두 개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는 경우 가치판단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소득분배가 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음.

[그림 1] 로렌츠곡선의 추이(1976-1997)



<표 2> 임금 십분위의 누적비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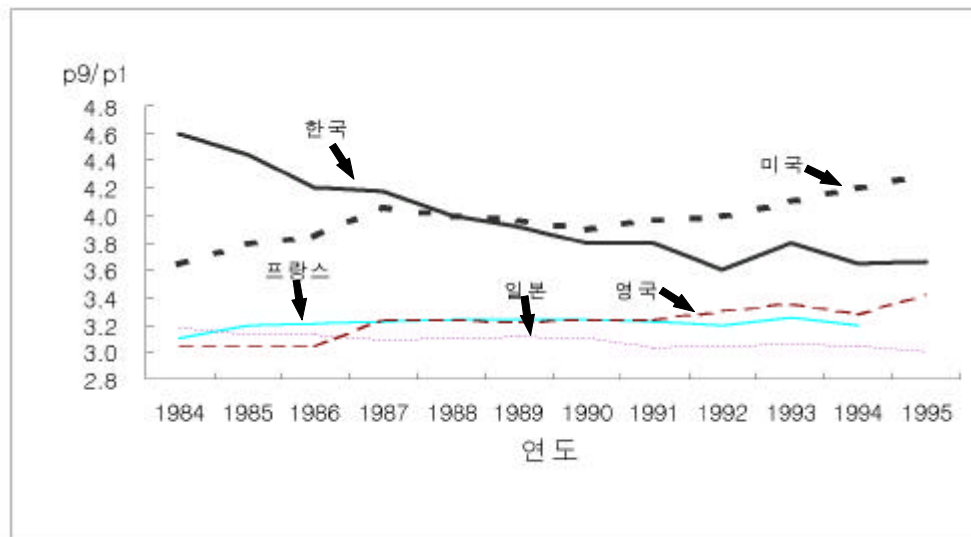
(단위 : %)

	1976	1981	1986	1991	1993	1997
1분위	3.08	3.14	3.37	3.71	3.83	3.72
2분위	7.21	7.38	7.82	8.65	8.90	8.75
3분위	12.08	12.36	13.06	14.50	14.93	14.82
4분위	17.63	18.19	19.18	21.29	21.95	21.99
5분위	24.00	25.10	26.47	29.14	30.11	30.30
6분위	31.48	33.38	35.13	38.24	40.51	39.80
7분위	40.73	43.44	45.44	48.84	51.21	50.61
8분위	52.61	55.97	57.86	61.26	62.47	63.16
9분위	68.92	72.13	73.40	76.49	77.29	78.20
10분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테이프 각년도에서 계산.

- 우리나라 노동소득 불평등도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보다는 낮으나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는 높음([그림 2] 참조).
- 외국의 노동소득 불평등도의 경우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통한 고용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영국, 미국과 그렇지 않은 프랑스와 일본과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음.

[그림 2] 각국 노동소득불평등도의 추이



자료: 한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데이터에서 계산.
 외국, OECD, Employment Outlook(1996)에서 계산.

2. 노동소득 불평등도 요인 분석(1993년 이전)

□ 회귀분석을 통한 노동소득 불평등도의 요인 분해 결과(<표 3>참조)

- 회귀식에서 설명되지 않는 요소(잔차)를 제외하면, 근속 및 경력의 차이에 기인한 요인(약 25%)이 1976년 이후 불평등도의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성별에 의한 요인(약 14%)이 두 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은 직종과 더불어 각 기간에 있어 서너번째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197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 기업규모에 의한 요인은 비록 그 정도는 작으나 1976년 이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3> 노동소득 불평등도의 원인별 분해

(단위 : %)

	1976		1981		1986		1993	
	기여도	순 위	기여도	순 위	기여도	순 위	기여도	순 위
교육	18.3	2	16.5	3	14.2	4	7.9	5
경력 및 근속	14.9	3	23.0	2	22.9	2	28.0	2
결혼 유 무	7.6	6	6.6	6	6.6	6	2.1	6
성 별	10.4	5	14.7	4	14.7	3	14.1	3
사업체 규모	0.5	8	0.6	9	0.9	8	1.9	7
근로 시간	-0.6	10	-1.4	10	-1.2	11	0.1	11
조합 유 무	n.a.		n.a.		0.2	10	1.4	8
산 업	3.3	7	4.7	7	4.9	7	1.4	8
지 역	0.2	9	0.9	8	0.9	9	1.0	10
직 종	10.7	4	10.3	5	10.2	5	9.5	4
잔 차	29.4	1	28.4	1	25.6	1	32.5	1
전 체	100		100		100		100	
로그임금의 분산	0.446		0.3984		0.3531		0.2893	

3. 노동소득 불평등도 감소 요인 분석(1993년 이전)

임금함수를 통한 노동소득 불평등도 감소의 원인별 분해 결과(<표 4>참조)

- 노동소득 불평등도의 감소 추세는 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증대에 의하여 상당 부분(약 30%) 설명될 수 있음.
- 기업규모의 차이에 의한 노동소득 불평등도는 1981년 이후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노동조합 유무에 의한 임금소득 불평등도는 기대와는 달리 1986년과 1993년 사이에 노동소득 불평등도의 감소에 3%정도의 기여만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1986년과 1993년 사이의 노동소득분배 개선은 노동조합운동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공급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적 요인에 주로 기인.

<표 4> 노동소득 불평등도 감소원인의 분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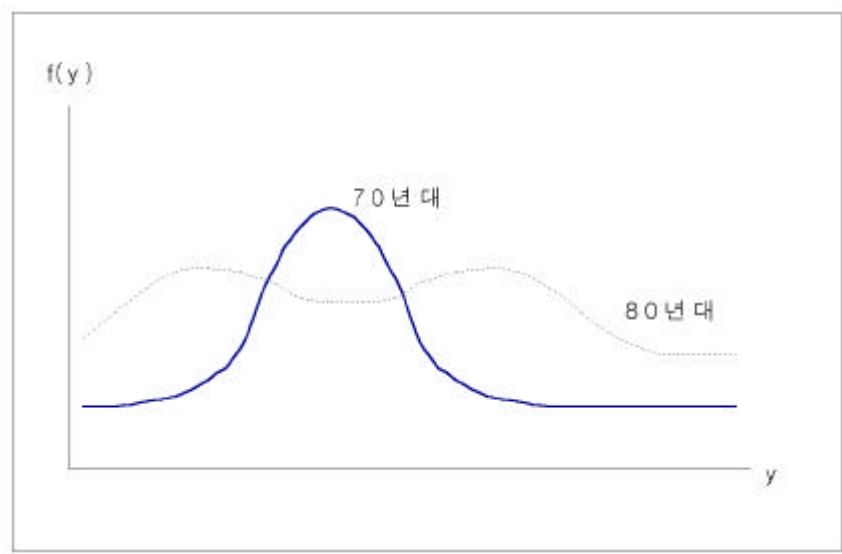
	1976 81		1981 86		1986 93	
	기여도	순 위	기여도	순 위	기여도	순 위
교육	24.1	3	34.9	2	33	1
경력 및 근속	-13.7	-1	-27.5	-1	14	5
결혼 유무	4.6	6	19.6	4	6	7
성별	-26.7	-4	21.4	3	11	6
사업체 규모	4.9	5	-2.5	-3	-2	-3
근로시간	7.6	4	-3.1	-2	-6	-1
조합 유무	n.a.		n.a.		-3	-2
산업	-4.7	-3	2.5	6	16	3
지역	-5.6	-2	0.5	7	0	8
직종	41.0	2	4.5	5	17	2
잔차	79.8	1	50.1	1	15	4
전체	100		100		100	
로그임금의 분산감소	0.0476		0.0453		0.0638	

4. 노동소득 불평등도의 전망 및 정책방향

외국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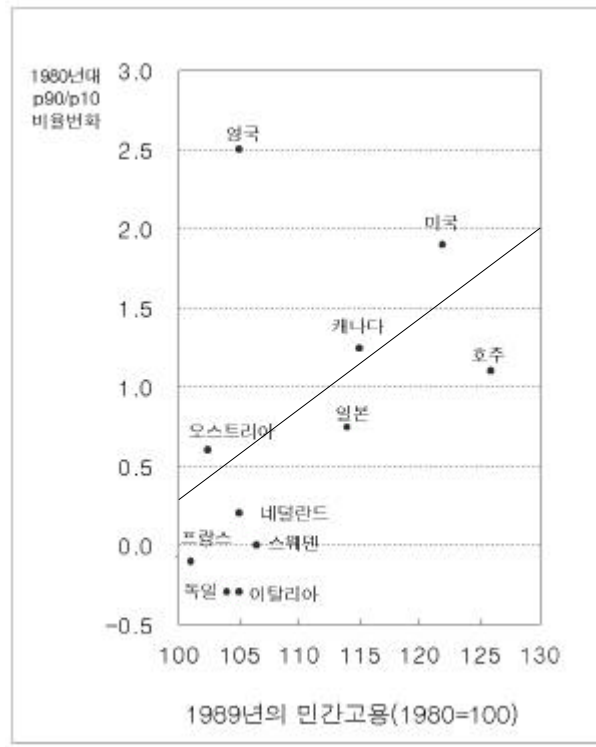
-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우(영미식) 임시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 증가에 따라 노동소득의 불평등도가 악화된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음.
- 개방화와 국제화 및 급격한 기술혁신의 결과 근로자 계층이 고도의 기술을 갖춘 지식근로자와 단순근로자로 이분화됨에 따라 이른바 ‘중산층의 몰락’으로까지 표현되는 노동소득 분배 악화 현상이 나타나게 됨([그림 3] 참조).

[그림 3] 미국 및 유럽의 소득분포 변화도



- 또한 근로자의 소득 평준화를 지향하는 노동조합 기능의 위축은 노동소득 분배를 악화시켰음(영국과 미국의 사례).
-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림 4]에서 보듯이 선진국에 있어 고용의 창출과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증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왔음.

[그림 4] 임금소득 불평등도와 고용의 창출



자료 :OECD(1994), Chart 5.1에서 재인용.

향후 우리나라 노동소득 불평등도 전망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사례에서 지적인 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추진, 2) 기술진보에 따른 근로자계층의 이분화, 3) 노동조합 조직력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최근에는 실업의 급증에 따라 제조업의 실질임금이 1997년에 비하여 15%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동소득의 분배악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 * 최근의 임금하락은 주로 초과근로급여와 특별급여(보너스)의 하락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임금 감소의 효과가 고임금인 사무직근로자보다 저임금인 생산직근로자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명목임금 3.8% 하락, 생산직의 경우 7.1% 하락).

<표 5> 최근 내역별 임금증감률의 추이(제조업, 1월부터 9월까지 누계평균)

(단위: 원, %)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생산직	1,125,258	-7.1	773,627	2.6	165,248	-20.0	186,382	-25.6
사무직	1,464,160	-3.8	1,154,616	4.4	61,174	-13.9	248,368	-28.0
합 계	1,253,492	-5.6	917,787	3.5	125,868	-19.0	209,836	-26.7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 9월호.

- 또한 1998년 10월 현재 1년 미만의 前職失業者(1,370천명)중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율이 61.8%로 나타나는 등 저임금계층에 실업이 집중됨에 따라, 향후 이들이 더욱 낮은 임금을 받고 취업(공공근로사업 등)한다고 볼 때 노동소득의 분배는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 존재.

향후 정책방향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고용창출에는 도움을 주나 소득분배는 악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외국의 사례이므로 양자의 상충관계(trade-off)에 대한 인식이 필요.
- 유럽의 경우 고용증대를 위해 소득분배의 악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나 고실업이 심각히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도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함.
-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고용 창출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하되 지나친 소득분배의 악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지속적 확대가 동시에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는 적정한 차이(학력, 경력 등)의 차별(성별, 기업규모별 등)에 의한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

1. 해당 시점의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분해방법

$\ln W_a = \sum_{i=1}^n b_{ai} X_{ai}$ 를 일정 시점 a의 추정된 임금함수로 놓으면(벡터로 표시하면

$X_a = [1, X_2, X_3, \dots, X_{n-1}, \varepsilon]$: 임금함수의 설명변수들과 잔차항,

$b_a = [b_1, b_2, b_3, \dots, b_{n-1}, 1]$: 추정된 회귀계수들로 표시됨),

$$var(\ln W_a) = \sum_{i=1}^n \sum_{j=1}^n cov(b_{ai} X_{ai}, b_{aj} X_{aj}) \text{ 이고, } ^{1)}$$

다시 $\ln W_a = \sum_{j=1}^n b_{aj} X_{aj}$ 이므로, 위의 식은 아래와 같이 변화된다.

$$= \sum_{i=1}^n cov(\ln W_a, b_{ai} X_{ai})$$

$$= \sum_{i=1}^n b_{ai} cov(\ln W_a, X_{ai}) \dots \dots \dots (A)$$

여기서 s_i 를 요소 i 의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라고 정의하고, 식 (A)의 양변을 $var(\ln W_a)$ 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식 (A)는 아래와 같이 변환된다.

$$100\% = \sum_{i=1}^n cov(b_{ai} X_{ai}, \ln W_a) / var(\ln W_a)$$

$$= \sum_{i=1}^n b_{ai} * cov(X_{ai}, \ln W_a) / var(\ln W_a) = \sum_{i=1}^n s_i \dots \dots \dots (B)$$

따라서 $b_{ai} * cov(X_{ai}, \ln W_a)$ 들을 구하면 즉,

추정된 회귀변수들(b_{ai} 들),

로그임금과 잔차를 포함한 설명변수들의 공분산들 [$cov(X_{ai}, \ln W_a)$], 여기서 상수항과

로그임금의 공분산은 0을 구하면,

로그분산으로 구한 일정 시점의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각 요소의 상대적 기여도

[$s = b_{ai} * cov(X_{ai}, \ln W_a) / var(\ln W_c)$] 로 분해할 수 있다.

2. 해당기간의 임금 불평등도 감소 원인에 대한 분해방법

두 기간 a와 c사이의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begin{aligned} & var(\ln W_a) - var(\ln W_c) \\ &= \sum_{i=1}^n cov(\ln W_a, b_{ai} X_{ai}) - \sum_{i=1}^n cov(\ln W_c, b_{ci} X_{ci}) \\ &= \sum_{i=1}^n s_i^a * var(\ln W_a) - \sum_{i=1}^n s_i^c * var(\ln W_c) \end{aligned}$$

여기서 s_i^a 는 a시점에서의 요소 i 의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 s_i^c 는 c시점에서의 요소 i 의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를 의미한다.

위의 식을 $var(\ln W_a) - var(\ln W_c)$ 로 양변을 나누고 100을 곱하면

$$100\% = \frac{\sum_{i=1}^n [s_i^a * var(\ln W_a) - s_i^c * var(\ln W_c)]}{var(\ln W_a) - var(\ln W_c)}$$

$$T_i^{ac} \text{를 } \frac{s_i^a var(\ln W_a) - s_i^c var(\ln W_c)}{var(\ln W_a) - var(\ln W_c)} \text{라 정의하면 } T_i^{ac} \text{는 요소}$$

i 의 a c기간 동안의 임금소득 불평등 감소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의미한다.

(유경준)